

2016년 제2차 「DMZ 포럼」 결과

'16. 6. 10(금) DMZ포럼 사무국

1. 포럼 개요

- 일시/장소 : '16.06.01.(수) 13:00 / 안산 에리카게스트하우스 에머랄드룸
- 참석자 : 50여명
 - ※ 독일 자연보전청(BfN), UNCCD, UNESCO C2C(인도), IPBES(네팔), EAAFP, 한스자이델재단, 국립생태원, 경기연구원, 김포시, NGO, DMZ포럼 위원 등
- 내용 : 생태계서비스파트너쉽아시아총회기간 2차 DMZ포럼을 <국제워크숍>으로 운영

2. 포럼 결과

총 평

- ◆ DMZ 생태계보전과 아시아지역 접경지 생태평화 파트너쉽 구축방안 모색
- ◆ DMZ 포럼을 국제전문기구와 연계하여 협력 플랫폼 구축
- ◆ 생태계기반 DMZ 정책 확산 및 아시아권 환경협력사업 주도적 추진

주제발표 및 사례발표

- (독일 BfN) 유럽그린벨트 : 분리된 국경, 하나의 자연
- (경기연구원) DMZ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
- (한스자이델재단) 북한의 접경지보전
- (UNCCD) 토지황폐화 사례
- (인도 UNESCO C2C센터) 인도 접경지보호구역 관리

패널토론 <DMZ 보전활동의 아시아적 협력>

- 살아있는 기념물인 DMZ를 보전·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,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, 나아가 아시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
- 조사, 정보 수집·분석 등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이 필요하며, 생태자료뿐 아니라 경관변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지속적인 생산·수집 및 구축이 필요함
- DMZ를 보전·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사실 및 인문·사회적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

전체토론 <향후 아시아 협력방안>

- 접경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필요
- 접경지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지역, 국가,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, 정부와 NGO, 학계 등 비정부 분야의 두 차원에서 접근 필요
- 지역주민의 접경지 환경보전 인식증진과 역량강화 교육 필요
-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지방정부 간, 전문가 간, NGO 간 정례적 교류를 위한 아시아지역 협력플랫폼 구상의 구체화 제안
- DMZ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정치사회적 이슈와 환경 이슈가 같은 레벨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